

레저보험 소개

〈편집실〉

◆ 관광버스 여행보험

이 보험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일반 상해보험에서 포괄적으로 취급해 왔다. 그러던 것이 관광여행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광버스여객보험 이 별도로 신설되었다.

이 보험에는 관광버스여객보험 외에 단체관광여행자보험 있다.

여행기간 중 하루에 1인당 1백50 원을 내면 1천만원까지 사고시에 보상받을 수 있다.

◆ 국내여행보험

국내여행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도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여행을 떠날 때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생기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받게 되는데 보험료는 하루에 9백70원에서 6천5백20원까지이다. 보상한도는 최고 1억원. 20명 이상 단체로 가입하면 5~10%까지 보험료의 할인이 가능하다.

◆ 해외여행보험

해외여행보험은 보험증권수첩으로 세계주요도시의 서비스망과 연결돼 보험혜택을 현지에서 받을 수 있다.

보험금 1천만원짜리의 경우 여행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 5일 이내는 2천원, 10일은 2천5백 원, 6개월은 1만4천4원 등이다. 여

행 중 항공기 납치 등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동안에는 하루 7만 원씩 받게 된다.

◆ 연수보험

단체연수 청소년수련대회·등산·야유회·수학여행 등 각종 행사 중에 일어나는 급성질환·추락·교통사고 등에 대비하는데는 단체연수건강보험이 좋다. 하루 보험료로 60원·1백원·1백50원 등 3종류가 있으며 사망시에는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장애시에는 정도에 따라 50만~1천만원까지 보상되며 감염성 기생충성 질환과 손상 및 중독에 따른 입원은 하루 1만원(통원치료는 5천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0명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회사에서 건강진단 없이 보험가입을 허용해 준다.

◆ 골프보험

가장 이용자가 많은 상품이며 골프장이나 연습장에서 발생한 신체장애, 용품손해, 제3자에 끼친 손해 등이 보상된다. 화장담보계약까지 할 경우에는 일상생활중에 입은 외래사고, 용품손해까지 보상해준다.

사망후유장애시에는 최고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경기도 종합인원을 할 경우 기념품증정, 기념식수비 등의 비용으로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연 기본보험료는 1만2백원이며 여기다 골프 용품가격의 0.226%를 가산한 금액을 전체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기업보험 거래처의 임직원에 한해서만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수렵보험

국내의 수렵장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 집을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상해 수렵용품손해·배상책임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상품이다.

◆ 테니스보험

테니스장에서 경기나 연습도중 입은 상해 및 테니스용품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해 보상받는다. 보험료는 대략 1만원 정도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보험금은 사망이 최고 1억원이며 상해후유장애는 보험가입금액의 3~1백%이다.

용품손해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시가보상되며 배상책임은 사고건당 5백만원까지이다.

◆ 낚시보험

낚시를 위해 집을 나서 돌아올 때까지 사이에 생긴 상해나 낚시도구의 도난·파손·남의 낚시도구를 망가뜨리는 등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해준다.

◆ 스키보험

스키를 타기 위해 집을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의 레저활동중에 생긴 신체상해·스키용품손해·배상책임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한다. ④